

학교탐방

“사랑과 꿈을 갖고 미래를 열어간다”

동광초등학교

두레학교 협동체제 운영 중심학교 호응 ... 교육장기 육상대회 3연패 달성

고성군 토성면 교암1길에 위치한 동광초등학교(교장 김동수)는 1944년 문을 열어 올해로 개교 67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총 2,162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김동수 교장

현재 전교생 52명과 교직원 18명이 가족 같은 분위기로 생활하고 있는 동광초교는 ‘사랑과 꿈을 갖고 미래를 열어가는 동광교육’을 교육목적으로 내걸고 있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예절 바르고 정직하며 질서를 존중하는 어린이 △기초·기본 학력이 튼튼한 지혜로운 어린이 △새로움을 찾아가는 창의적인 어린이를 교육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동광초등학교는 학교 특색교육과 두레학교 협동체제 운영을 통해 지역 인재 육성에 나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동광초교는 두레학교 협동체제 운영 중심학교로 인근

도학초교·인흥초교와 다양한 공동체 활동(두레 체육대회, 두레 재량·특별활동, 두레 교과활동, 두레 학교재량활동, 두레 수학여행 등)을 펼치고 있다. 이를 통해 3개 학교의 아이들이 서로 협동하고 인내하며, 친구들과 간의 우정도 돈독히 하고 있다.

또한 학교 특색교육으로 독서활동과 음악줄넘기를 실시해 지·덕·체를 모두 겸비한 미래 사회에 창의적으로 생활하는 어린이들을 기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독서활동은 학교도서관과 속초평생정보관을 이용해 1일 20분 책읽기, 독서신문 만들기, 독서 능력 달인제, 1인 1독서 기록장 작성하기, 독서퀴즈대회, 도전! 독서 골든벨!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동광초교는 스포츠도 잘하는 학교로 유명하다. 지난해까지 교육장기 육상대회에서 3연패를 달성했고, 관내 초등학생 중 유일하게 강원도 대표 육상선수가 있는 학교이기도 하다. 더불어 양궁부가 올 초 소년체전에서 많은 활약을 했으며, 내년에는 강원도 대표에 선발될 가능성이 높은 학생이 있다고 한다.



동광초등학교 전경

이밖에도 학생들의 학습동기 강화 및 자 주도적 학습을 위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 마련에 노력을 기하며, 교사들도 다양한 동료장학을 통해 좋은 수업 만들기에 부단한 노력을 기하고 있다.

다양한 방과후 학교도 운영하고 있다. 1, 2학년 초등돌봄교실을 논술, 바이올린, 한자, 클레이아트, 수학놀이, 워드, 집단상담, TALK 프로그램으로 운영했다. 나머지 학년을 대상으로는 논술, 바이올린, TALK,

워드, 플롯, 클레이아트, 연극놀이, 골프 등 11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학부모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수영교실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동광초등학교 김동수 교장은 “학교 공동체 모두가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생활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마음껏 공부하고 자신의 미래를 찾아갈 수 있도록 모든 교직원이 열심히 교육에 매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승근 기자

김광섭의 고성이야기 <20>

고성팔경(高城八景)⑥ 건봉사(乾鳳寺) Ⅸ

금강산 건봉사와 신학문 봉명학교(鳳鳴學校)

관동지방 최초의 신학문 학교인 건봉사 봉명학교는 명진학교(明進學校)의 영향으로 1906년 8월 1일에 개교하여 여러 차례 재개교가 거듭되었고 1936년 가을 일제에 의해 강제로 폐교 당할 때까지 보통학교과정과 고등보통학교를 개설하는 등 신학문, 신문명의 확고한 기초에서 운영되었다.

이런 요인으로 인하여 건봉사에서 22명의 재일 유학생이 배출되었으며 건봉사에서 적극 후원으로 봉명학교 출신인 재일불교 유학생들의 지속적으로 참여, 지도하에 신세대의 교육 운동에 큰 힘을 쏟았다.

봉명학교 설립 취지문(황성신문 1907.1.26 1면에 따르면 봉명학교에서는 신학문과 전통적인 학문을 균형적으로 교육하겠다는 생각을 피력하였으며, 이런 교육 이념을 토대로 봉명학교를 설립한다면 원효, 보조, 서산, 사명이 추구하였던 호국불교의 구현이라는 민족불교의 전통을 달성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그래서 그런 자신감으로 각 처의 선비와 승려들이 봉명학교로 와서 지열하게 배울 것을 권장, 호소하였던 것이다. 바로 이 같은 현실인식, 신문명과 신학문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민족불교의 구현을 이루겠다는 것이 봉명학교의 설립 이념이었다.

이런 배경에서 개교한 봉명학교는 1920년대에 이르러 보다 활발한 교육 활동을 펴 유치부·초등부·중등부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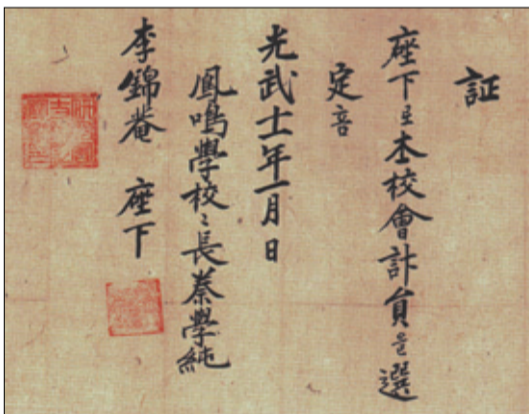
학제를 두고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와 지리·역사·수리(數理)등 신학문을 가르쳤다. 봉명학교는 단순히 수업뿐만 아니라 반해의 강연회와 ‘국경의 달밤’의 연극제, ‘조선독립 만세’를 연상케 하는 가장행렬 등도 활발히 치렀으며, ‘연등제작 대회’를 비롯한 청년회 등 ‘이러타 독서회’ 각종 모임도 장려했다.

특히 건봉사에서 관동축구회를 주최하면서 백여 명의 사내의 학생들과 젊은 스님들의 협력으로 운동장을 만들어 4월 초파일 전 6일부터 7일까지 개최하였다고 한다. 이 때 참가하기 위해 모인 단체들과 사람들이 냉천리 주막과 도가에는 만원이었고 임시 천막을 치고 숙식을 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건봉사에 모인 여인 관객들만 천여 명이었다고 한다.

관동축구회에 참가한 영동지방의 청년들은 각자 팀을 구성하여 훈련을 통해 다져진 다섯 팀이 출전하였는데 주최 측인 건봉사 고성 팀이 두 번이나 우승을 하였는데 대회가 끝난 다음 저녁 무렵이 되면 사내의 스님과 봉명학교 학생들 모



사진 왼쪽은 1935년 봉명학교 봉사소년회 기념촬영. 사진 오른쪽은 금암 스님의 봉명학교 회계원임명장(1907년). 이 사진은 이영선 편저 <건봉사사적>에서 발췌한 것임.



두가 우승기를 들고 꼭두각시 놀이패와 함께 어울려 춤을 추며 시찰안과 동구박을 돌며 사월기념행사를 축하하면서 끝을 맺었다고 한다.

건봉사 봉명학교는 한 번에 14~15명씩 일본에 유학생을 보낼 정도로 교육 활동에 대단한 열의를 보였다. 그래서 영북 지역에서 건봉사의 도움으로 유학을 다녀온 사람이 적지 않다.

그밖에 봉명학교에서는 만해 한용운의 강연을 적극 유치하여 불교사상과 문학 등에 대한 교양을 쌓기도 하였다.

한편 봉명학교에서는 일제강점기에 국제보상운동에 앞장서기도 하였다. 국제보상운동이란 일제의 노골적인 침략 의도가 드러나던 1907년 2월 일본에 대한 국채를 갚아 나라의 자주권을 지키려는 민중들의 자발적 움직임이다.

당시의 황성신문·대한매일신보·제국신문·만세보 등 각종 신문의 호응을 받아 범국민운동으로 전개되어 건봉사 봉명학교에서도 적극 이 운동에 참여하여 1907년 4월 9일 봉명학교 교직원 10여명과 스님 학생 등 176명은 만일 염불회에서 1백46원76전을 국제보상운동 성금으로 대한매일신보에 기탁함으로써 불교계의 국제보상운동(나라 빛을 갚는) 의연금으로 내면서 적극 이 운동에 기여하였다.



김 광 섭

- 향토사학자
-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 위원
- 고성향토문화연구회 사무국장
- 논문: <선유담의 고찰>, <간성의 만경대와 누정 고찰>